

##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and Conflict between Old Parents and Adult Children

誠信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大學院生：申 一 眞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Il Jin Shin

誠信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副教授：金 兌 玄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 Tae Hyun Kim

### 목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1. 의사소통
  - 2. 갈등
  - 3. 의사소통과 갈등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의 설정
  - 2. 측정도구의 작성

- 3. 표본추출 및 분석방법
- 4. 연구의 제한점
- IV. 연구결과 분석
  - 1. 연구문제 1의 분석
  - 2. 연구문제 2의 분석
  - 3. 연구문제 3의 분석
- V.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 and conflict between old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For this purpose, 380 adult children are surveyed therefore the answers of survey are described by adult children only. The number of old parents turn to be 230 old fathers and 301 old mothers respectively, there numbers have included the case both parents are alive.

The data were analysed several method with SPSS and the methods used for the analysis are Factor analysis, one way ANOVA, Scheffé-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 1) Old parents' communication patterns differ each other and under many variables.
- 2) In the conflicts between old parents and adult children differ each other and under many variables, too.
- 3)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and conflict between old parent and adult children turn to be as follows : Two communication styles ie. the authoritarian style and insincere style increase conflicts. Friendly style have negative affect to conflicts and decreases the conflicts. Sacrifice style is turn to have slightly affect the conflict.

## I. 서 론

본 연구는 老父母와 성인자녀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의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 및 그 관계를 알아 봄으로서 두 세대간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유형을 발견하여 갈등의 해결을 위한 방향제시에 목적을 둔다.

오늘날 老父母와 성인자녀간의 유대를 보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의 증가, 가족의 전통적인 보호기능의 약화라는 일반적인 지적과 함께 자녀들이 老父母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신화(myth)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들과 상호애정, 상호원조, 빈번한 접촉, 그리고 의무감과 적극적인 관심에 기초한 밀접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Shanas(1982) 등의 경험적인 연구로 양분화 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 중 하나(Wilamson, Evans & Munley, 1980)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관계는 또한 서로 다른 세대간의 관계로서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관계이다 (김재은 1981). 다른 세대에 의하여 한 세대가 계승됨은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집단들의 삶 속에 반영된 변화와 계속성 사이의 피할 수 없는 긴장을 내포하게 된다(Bengtson, 1982).

세대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관련해서 볼 때 인생에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빠른 변화를 경험한 한국의 노인과 그 자녀세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가치체계는 전통사회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문의 연속성과 집합체로서의 가족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한 전통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으며, 가족집단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엄격한 상하서열주의와 권위주의가 강조되었으며(최재석, 1982),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주의적이고 평등지향적인 가치를 지닌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자연적으로 이끌게 된다. 또한 과거 우리의 유교 문화권은 표현을 억제하고 감정을 누르며 노출을 금기시하는 主知主義가 강하여(횡필호, 1984), 갈등의 해결의 중요 수단인 서로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면에 있어서도 부부관계의 파악을 위한 것이 많고,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는 청소년자녀와의 관계를 본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老父母와 성인 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질에 중점을 두어서 그 예측 변수가 될 수 있는 의사소통과 대인적 갈등을 보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의사소통

#### 1) 의사소통의 개념 및 유형

가족내의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Galvin과 Brommel(1982)은 의사소통을 하나의 상징적(symbolic) - 의미를 전달하는 것 -이며, 상호거래적인(transactional) -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 과정으로서 의미를 창조, 공유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Bienvenu와 McClain(1970)은 의사소통 -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 을 사람들이 서로를 이

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려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서로의 느낌, 의미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았으며 Satir(1972)는 모든 의사소통은 학습되는 것으로써 의사통의 배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 변하기만 한다면, 의사소통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봄으로써 가족문제 해결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의사소통의 범위는 관점에 따라 좁게는 언어적행동에서부터 넓게는 개인이 하는 모든 행동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며 이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가족내에서 개인의 모든 행동은 의사소통이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Watzlawick, Beavin & Jackson, 1967). 즉 의사소통은 관계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반면 관계 역시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Honeycutt, Wildson & Parker, 1982).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느낌, 입장, 생각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라는 관점으로 보고자 하였으며 老父母가 성인자녀에게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성인자녀가 지각한 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Hawkins와 Weisberg 그리고 Ray(1980)에 의하면 의사소통 유형이란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의사소통의 과정을 보여 주는데 개인간의 정서적 친밀성의 공유와 개인의 사고, 가치, 관심등의 표현을 향상시키거나 억제하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의 특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Norton(1978)은 의사전달자의 유형(communicator style)을 한 개인이 말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고, 여과되며, 이해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Honeycutt, et al., 1982; 재인용).

의사소통 유형은 크게 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기능적 의사소통은 가족원들에게 두려운 것, 기대하는 것 등을 분명하며 솔직하게 의사전달하고 활기있고 자발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지나치게 권위적이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주위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며

비판적이며, 분명하지 않고 모순되게 말하는 행위, 애매모호하고 혼돈된 언행,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의사소통 행위 등을 의미한다(송성자, 1985).

선행연구들(송성자, 1985; 이창숙, 1987; Satir, 1970; Norton, 1978; Hawkins, et al., 1980; Honeycutt, et al., 1982)을 기초로 본 연구와 관련된 개념만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과의 관련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갈등과 더 많은 관련을 가질 것으로 보았으므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는 권위형, 비난형, 불성실형, 희생형의 4가지를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는 친밀형을 보았다.

### (1) 권위형

한국인의 성격에서 두드러지는 권위의식이 의사소통시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권위의식은 전통적 가족구조에서 “가문”이라는 권위적 집단의식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복종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에 의하여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였으며 자기 중심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즉, 자기주장이 강하고 의사소통시에 상대방에게 명령적, 지시적이며 의견차이시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며 이런 내용들은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된것이며, 변화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송성자, 1985; 이창숙, 1987).

### (2) 비난형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비난함으로서 자신의 중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다(Satir, 1972).

### (3) 불성실형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일관성 없이 말하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며, 솔직하지 못하며 책임감이 적은 것이 의사소통시에 나타난다(이창숙, 1987).

## (4) 희생형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인데 순종적이고, 복종적이며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송성자, 1985 ; 이창숙, 1987).

## (5) 친밀형

상대방에 대해 우호적이며 사교적인 행동특성을 나타낸다. 관용적이며 포용적이며, 친밀한 태도를 나타내며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향하고 있는 행동양식이 나타나는데,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자신의 입장은 솔직, 정확하게 표현하는 등 상대방에게 진실한 태도를 나타낸다.

## 2) 老父母와 성인자녀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

老父母와 성인자녀간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거리적인 근접성 보다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더 관련된다(Johnson & Bursk, 1979). 그리고 의사소통은 지역적인 거리가 갖는 부적인 효과를 감소 시킬 수 있다(Atkinson, Kivett & Campbell, 1986). 노인은 가족내에서 연장자로서 기능하며 자신이 다가오는 세대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런 감정은 자신에게 귀기울이는 젊은이에게 길잡이가 될 만한 정보나 이야기를 하면서 총족될 수 있다(Galvin & Brommel 1982). 老父母들은 서로가 간섭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보호나 부양에 중점을 둔 더 의존적이고 많은 양의 대화를 자녀와 하고 싶은 기대와 있으며,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자녀들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었다(Clark & Anderson, 1967 ; Arling, 1976 재인용 ; Blieszner & Mancini, 1987). 이러한 부모의 기대가 자녀와 만나지 않을 때 잠재적인 갈등과 실망을 느끼게 된다. 가족 성원들이 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서로의 가치, 신념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호의를 증가시킬 수 있다(Jacobson, Berry & Olson, 1975).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종류의 활동보다 가족과 더 관련

된다는 것(Sussman & Burchinal, 1979)과 더불어서 노년기에 있어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그 관계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영향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생각, 느낌, 기대를 전달하는데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모, 자녀가 지각한 바에 따라 관계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반면에 빈약한 대화는 노년기에는 대두되는 부모-자녀간의 새로운 역할협상에 도달하는 기회를 막을 수도 있다(Quinn, 1983). 그러나 의사소통은 애정, 흥미, 가치등이 안정적인 특징을 갖는 반면에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변수(Quinn, 1983)이므로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시에 서로가 많은 시간을 갖고 관심사를 의논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2. 갈등

## 1) 갈등의 개념

갈등은 둘 내지 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유영주, 1985)로서 가족내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가족원이 자신의 바램과 다른 사람의 욕구가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 과정으로 태도나 가치의 차이 때문에 진전된다(Galvin & Brommel, 1982). Scanzoni와 Polonko(1980)는 한 가족구성원이 상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일정한 보답을 원하는 경우 그는 먼저 상대가 원하는 보답을 채워주야 하는데, 이러한 가족역할, 감정등의 교류를 상호성이라 할 때 상호성의 양과 질이 문제가 되며 가족구성원 일방이 상호성을 무시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김양희(1986)는 갈등이란 가족내에서 권위와 경제적 자원의 분배과정에서 생기는 가족성원들 사이의 마찰로서 갈등 당사자들의 심리적 불안 상태 즉 긴장감에서부터 말다툼이나 폭력사용등의 표출적인 행동까지를 포함한다고 하여 권위와 경제적 자원이 갈등의 주 대상임을 말하였다. 가족체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현실적으로나 비현실적으로 갈등에 대처해 나가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마찰을 끊임없이 경험한다. Ackerman(1970)에 의하면 가족갈등은 갈등에 연루된 가족성원들을 정서적인 대처상태로 몰아가기도 하며 가족성원들

또한 제각기 내면적, 정서적인 제 요소를 상호작용 속에 투영함으로써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현재의 가족갈등은 가족관계 초기부터 내면화된 갈등의 최종적인 결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임춘희, 1989;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갈등을 상호작용시에 서로의 가치, 신념, 의견의 차이와 가족원간의 문제에서 불일치로 정의하였으며 성인자녀가 老父母에게 느끼는 갈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2) 老父母와 성인자녀간의 갈등

갈등이 가치와 태도의 차이때문에 진전된다고 볼 때 老父母와 성인자녀간의 세대차이는 갈등을 심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치, 태도, 생활방식등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대인간의 관계에서도 발생하지만 老父母와 성인자녀관계에서는 세대차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며 그 특징을 이룬다. 세대(generation)는 어떤 집단이 공통으로 소유하는 사회적, 역사적인 특징으로써 동시대의 다른 집단과 구별을 만드는 특성을 의미한다(Bengtson 1976). 노인과 그 자녀세대는 서로 다른 인생주기에 속하는 사람(Bengtson, 1976; Hess & Waring, 1978; 김재은, 1982; 윤진, 1985)이기 때문에 어떤 한 시점에서 그들의 상황, 생각, 관심사, 생활방식등이 아주 다를 것이며, 그러므로 노년기의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이 가족발달 단계의 초기의 관계보다 동료관계의 과정과 더 흡사하다면, 가치와 태도의 유사성을 서로 공유하는것이 좋아함과 더 많은 접촉을 하게 할 것이며, 이때 부모와 자녀의 나이차이와 동시집단(cohort)의 차이는 세대간의 일치와 애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Hess & Waring, 1978; Johnson & Bursk, 1977). 특히 한국의 老父母와 성인자녀세대의 관계를 볼 때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인권존중을 강조하는 평등사상은 자녀의 성장으로 인하여 부모의 권위와 지배의 재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이효재, 1984). 그리고 老parents와 그 자녀들이 비록 서로에 관해서 알고 있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염려해 준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서로에 경험을 공유하거나 공감하기는 어

려우며(Arling, 1976), 성인자녀들은 부모보다는 배우자나 자식들과 더 밀접함을 느끼고 있어(Seelbach, 1978), 이러한 세대차이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 다른 갈등은 노인의 의존성으로 인한 갈등일 것이다. 비록 노인이 인생후반까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대부분이 점차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면서 쇠퇴의 시기를 경험한다(Cicirelli, 1983). 老parents가 자녀에게 의존하는 문제는 무기력한 유아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에 그 근원이 있다. 즉 인생주기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관찰되는 것과 비슷한데, 노년기에 있어서 그 이유는 나쁜 건강, 경제적 취약성이 문제의 주 요인중 하나가 되며(Streib, 1972), 老parents와 자녀간의 의존-독립의 미묘한 균형이 부모의 노화로 인하여 자녀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은 자녀에게 의존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생기게 한다(Brody, 1986). 이것은 역할전이(role transition) 또는 역할역전(role reversal)이라는 용어로서도 설명될 수 있는데, 역할전이는 성장하고 나이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역할과 기대감을 의미한다(Bengtson, 1976). 가족에는 불가피한 역할전이가 있으며 나쁜건강, 빈곤이 세대간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老parents에게 있어 이제까지의 자녀에게 물질적 원조의 제공자이며, 권위자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에 익숙해왔던 노인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원조를 더 젊은 가족성원 즉, 자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아동과 같은(child-like) 역할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Arling, 1976). 노인의 의존성을 곧 역할수행의 감소 내지 제한을 의미하며 역할의 제한은 가족역할의 한정된 참여를 뜻하며 의존적 지위를 반영한다. 역할과 지위의 중요성은 지위의 위세(prestige)도, 영향력 및 개인이 소유한 자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Atchley, 1977)으로 본다면,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견지에서 잠재적으로 유용한 역할의 상실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져올 수 있다(최신덕, 1983). 가족내에서의 목표는 자율성과 의존성간의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동등한 균형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개인이 변화함에 따라 허락하는 것이다. 이 균형은 일생을 통해 변화하며 개인이 자율성의 변화에 항상 적응해야 하듯이 정상적인 협상의 간격을 요구한다(Bengtson, 1976). 그리고 젊은 세대가 老父母세대에게 베푸는 부양의 역할은 과거에 자녀들이 성장한 시기와 그 “부양의 역할”이 바뀐 것이기는 하지만 노인이 제2의 아동기를 맞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의 역할”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오로지 효도 내지 자식으로서의 성숙성(filial maturity)에 기초를 둔 부양이며, 老父母가 믿고 의지하려는 여러 의존성을 어느정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자녀세대쪽의 역량을 뜻한다(윤진, 1985).

### 3. 의사소통과 갈등

의사소통이 가족내에서 서로간의 의견, 느낌을 교환, 공유하는 주요한 통로 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형태와 질에 영향을 미치며 갈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다.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갈등을 정의한 Wilmot 와 Wilmot(1978)는 갈등이 인식되고 표현되는 것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갈등을 봐야한다고 하였다. 즉 의사소통은 학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Satir, 1972),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지식을 배우지 못한 가족에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피하거나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내버려 두지만(Hill & Aldous, 1969 ; Galvin & Brommel, 1982 ; 재인용),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어떤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오해나 부정확한 추측에 기인한 것이면 더욱 그렇다. 전반적으로 가족간의 긴장은 중요한 생활경험이나 분노등을 같이 나누려는 바램과 이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나, 이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욕망사이에서 생기게 된다(Moss, Moss & Moles, 1985). 그리고 가족구성원간의 결속이 아주 약한 가족에서는 감정적으로 손상받을지 모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할 수 있는 싸움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의사소통을 피하는 것이 더 쉽고 불쾌한 감정적 갈등을 피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혼란스러운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기 쉽

다(Swenson, 1973).

Cicirelli(1981)의 연구에서는 Indiana의 부모와 그 자녀 중 단지 5%만이 심각한 갈등이 있다고 보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즉 갈등의 낮은 발생율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문제가 생길만한 주제들을 조심스럽게 피하는 것에 기인하다고 보았다(Troll, 1986 ; 재인용). 또한 Hagestad(1981)는 모든 나이 수준의 가족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무장지대(dimilitarized zones)”가 있음을 보고 했는데 이 비무장지대는 관계를 위협할수 있는 잠재적인 의견차이로 인한 가득한 주제는 피해지며 부드러운 상호작용을 하게 하다고 하였다(Moss et al., 1985 ; 재인용). 하지만 老父母와 성인자녀 관계에 있어서 즉시 말하지 않거나 말해지지않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서로가 불편한 감정을 갖게되고 이런 해결되지 않은 느낌은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다음의 접촉에까지 이월될 수 있다(Moss et al., 1985). 세대간의 관계에 있어서 세대차이 다음으로 의사소통의 부족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Marotz-Baden & Cowan, 1987), 특히 서로간의 자유로운 의견의 교환을 통한 협상보다는 부계가족의 질서안에서 정해진 역할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우리나라의 노인세대의 부모와 성인자녀간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갈등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의 설정

〈연구문제 1〉 老父母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老parents와 성인자녀간의 갈등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老parents의 의사소통유형은 성인자녀의 老parents에 대한 갈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영향은 어떠한가?

### 2. 측정도구의 작성

#### 1) 일반적 사항

배경변인으로 조사 대상자인 성인 자신에 대한

것 8개문항, 그들의 부모님인 老父母에 대한 것이 老父, 老母 각각 6개문항, 그리고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3개 문항이다.

### 2) 의사소통 유형

의사소통 유형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선행 연구를 근거로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권위형, 비난형, 불성실형, 회생형을 각각 12문항씩 정하고,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친밀형 12문항으로 구성한 총 60개문항으로 측정은 부모님이 각 문항에 제시된 의사소통 행위를 자녀와 대화시에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자녀가 지각한 정도에 의하였다. 5점 Likert형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아주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빈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 60개문항이 老父母와 성인자녀간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거친후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이 문항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주성분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Method)과 직각회전방식(Varimax Rotation Method)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였다. 그 결과 6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분류된 요인의 신뢰도를 알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구한 뒤, 신뢰도가 낮은 제5,6요인을 제외한 4개 유형만을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표 1). 이들 4개요인은 老父의

표 1. 의사소통 유형의 신뢰도 계수

	老父		老母	
	문항수	Cronbach's $\alpha$	문항수	Cronbach's $\alpha$
요인 1	20	.91	18	.90
요인 2	11	.89	12	.89
요인 3	12	.90	12	.88
요인 4	9	.78	7	.74
요인 5 <sup>a)</sup>	2	.38	2	.35
요인 6 <sup>b)</sup>	1	—	2	.87

<sup>a),b)</sup>신뢰도가 낮아 제외된 요인

주<sup>1)</sup>: 의사소통 유형 측정도구의 자세한 내용은 신일진(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에 관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경우 고유치가 24.96으로 전체 변량은 45.1%이며, 老母의 경우는 고유치가 20.85이고 전체으로 변량은 38.7%이다.

요인은 명명은 요인에 포함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제 1요인은 “권위형”으로 명명되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 2요인은 “친밀형”으로, 제 3요인은 “불성실형”으로, 제4요인은 “회생형”으로 각각 명명되었다.

### 3) 갈등

갈등척도는 선행연구들(Argyle & Furham, 1983 ; 송현애, 1986 ; 임춘희, 1988 ; 장선주, 1990)을 기초로 하여 9개문항을 그대로 혹은 수정하였고, 그외의 자녀의 상대적 비교, 권리문제, 자녀무시, 대화시의 이해부족등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6개문항을 합친 총 15개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방법은 성인자녀가 老父母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는 정도로서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 1점, “갈등을 아주 많이 느낀다”에 5점을 주는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합은 15점에서 75점의 범위를 갖는다. 신뢰도는 老父의 경우는  $\alpha=.90$ 이며, 老母의 경우는  $\alpha=.87$ 이다

### 3. 표본추출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1990년 6월 현재 친부모님 중 한분이상이 노인(60세 이상)인 성인 남녀(20세 이상)로 조사지역은 서울시로 한정하였으며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0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상자 30명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 의미파악이 어렵고 부적절한 문항은 수정한 뒤, 1990년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본조사를 하였다. 총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380부(76%)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조사대상자의 한쪽 부모님 이상이 생존한 포함하기 때문에 老父 230명, 老母 301명으로 분류되었다.

표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1. 성인자녀(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성별	남	160	42.1	직업	근로직	86	9.5
	여	220	57.9		관리직	16	4.2
연령	20~29세	70	18.4		사무직	88	23.2
	30~39세	131	34.5		전문직	48	12.6
	40~49세	147	38.7		판매직	40	10.5
	50~59세	32	8.4		무직, 주부	113	29.7
학력	국졸이하	11	2.9	출생 순위	학생, 기타	39	10.3
	중졸	57	15.0		장남(장녀)	154	40.5
	고졸	149	39.2		차남(차녀)	193	50.8
	대졸이상	163	42.9		외아들(외동딸)	33	8.7
결혼상태	기혼	312	82.1	부모님 과의 대화 정도 <sup>c</sup>	거의하지않음	19	0.5
	미혼	68	17.9		가끔한다	118	31.1
가정의 월수입 <sup>a</sup>	29 만원이하	8	2.1		보통이다	123	32.4
	30~59 만원	69	18.2		자주하는편임	99	26.1
	60~89 만원	120	31.6		매우자주한다	21	5.5
	90~119 만원	82	21.6	동거 여부	동 거	119	31.3
	120~149 만원	51	13.4		비동 거	261	68.9
	150 만원이상	49	13.2	경제적 도움 정도	생활비 전액	42	11.1
종교 <sup>b</sup>	기독교	108	28.4		생활비일부액	42	11.1
	천주교	52	13.7		용돈정도	136	35.8
	불교	90	23.7		필요시에만	59	15.5
	기타	7	1.8		전혀하지않음	101	26.6
	무교	123	32.4		계	380	100.0

<sup>a)</sup> 분석시에는 하(59만원이하), 중(60~119만원), 상(120만원이상)의 3집단으로 하였다.<sup>b)</sup> 분석시에는 유, 무의 2집단으로 하였다.<sup>c)</sup> 분석시에는 적게한다(거의하지않음, 가끔한다), 보통이다. 자주한다(자주하는편임, 매우자주한다)의 3의집단으로 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1) 노인이 도구의 특성상 질문지에 답하기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老父母-성인자녀의 쌍으로 하지 못하고 성인자녀가 지각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노인세대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상당히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지 만 언어적 의사소통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의도적 표준추출에 의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모가 노인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3) 본 연구의 도구는 주관적인 측정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선정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

표 2-2. 老父母의 일반적인 성격

변인	구분	老父 <sup>a</sup>	老母 <sup>b</sup>		
		N	%	N	%
배우자	있음	160	69.6	139	46.2
	없음	70	30.4	162	53.8
연령	60 ~ 64 세	95	41.3	132	43.9
	65 ~ 70 세	53	23.0	58	19.3
	70 ~ 74 세	49	21.3	56	18.6
	75 ~ 79 세	24	10.4	34	11.3
	80 세 이상	9	3.9	21	7.0
건강 <sup>c</sup>	건강하시다	136	59.1	104	34.6
	별로 건강하지않다	79	34.3	170	56.5
	편찮으시다	12	5.2	20	6.6
	도움이 필요하다	2	0.9	4	1.3
	거의 누워 계시다	1	0.4	3	1.0
종교 <sup>d</sup>	기독교	33	14.3	66	21.9
	천주교	22	9.6	37	12.3
	불교	50	21.7	130	43.2
	기타	9	3.9	4	1.3
	무교	116	50.4	64	21.2
학력	국졸, 서당이하	82	35.6	219	72.9
	중졸	50	21.7	42	14.0
	고졸	55	23.9	32	10.6
	대졸이상	43	18.7	8	2.7
정규적인 모임참여 (번/1달) <sup>e</sup>	0 번	81	35.2	97	32.2
	1 ~ 3 번	74	32.2	108	34.2
	4 ~ 6 번	37	16.1	55	18.3
	7 ~ 9 번	9	3.9	16	5.3
	10 번 이상	29	12.6	30	10.0
계		230	100.0	301	100.0

a), b) 성인자녀의 부모님 중 老父, 老母 양쪽이 다 있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老父의 경우 230명, 老母의 경우 301명으로 분류된다.

c) 분석시에는 상(건강하시다), 중(별로 건강하지 않다), 하(편찮으시다, 도움이 필요하다, 거의 누워 계시다)의 3집단으로 하였다.

d) 분석시에는 유, 무의 2집단으로 하였다.

e) 분석시에는 가끔(0~3번), 보통(4~6번), 자주(7번이상)의 3집단으로 하였다.

#### IV. 연구결과 분석

##### 1. 연구문제 1의 분석

老父母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사소통의 4가지 유형인 권위형(老父, 老母), 친밀형(老父, 老母), 불성실형(老父, 老母), 회생형(老父, 老母)을 종속변인으로, 배경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하였고 사후검증은 Sheffé-Test를 이용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사후검증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겠다(표 3).

표 3. 老父母의 의사소통 유형

의사소통 유형	老父·母	변인	구분	M	F	grouping
권위형	老父	자녀의 성별	남(아들)	2.34	7.07***	
			여(딸)	2.11		
		자녀의 결혼 상태	기혼	2.09	6.22**	
		미혼	2.41			
친밀형	老父	老父의 배우자 유무	있음	2.14	7.00***	
		배우자 유무	없음	2.39		
		자녀의 성별	남(아들)	3.19	4.40**	
			여(딸)	3.40		
친밀형	老父	자녀의 연령	20~29 세	3.07	6.26****	AB
			30~39 세	3.36		A
			40~49 세	3.49		A
			50~59 세	2.68		B
친밀형	老父	자녀의 결혼 상태	기혼	3.42	4.96**	
		미혼	3.09			
		동거 여부	동거	3.15	5.16**	
			비동거	3.39		
불성실형	老母	자녀의 성별	남(아들)	1.83	3.59*	
			여(딸)	1.70		
회생형	老父	자녀의 연령	20~29 세	1.94	9.12****	B
			30~39 세	2.24		AB
			40~49 세	2.50		A
			50~59 세	2.46		A
회생형	老父	자녀의 결혼 상태	기혼	2.42	12.31****	
		미혼	1.97			
		老父의 배우자 유무	있음	2.32	4.95**	
		없음	2.11			
회생형	老父	老父의 연령	60~64 세	2.10	3.63***	B
			65~69 세	2.24		AB
			70~74 세	2.44		AB
			75~79 세	2.32		AB
회생형	老父		80세이상	2.75		A
		老父의 학력	국졸, 서당이하	2.43	4.18***	A
			중졸	2.17		AB
			고졸	2.25		AB
회생형	老父		대졸이상	2.02		B
		동거 여부	동거	2.23	5.34**	
			미동거	2.44		

\*P&lt;.10 \*\*P&lt;.05 \*\*\*P&lt;.01 \*\*\*\*P&lt;.001 \*\*\*\*\*P&lt;.0001

1) 권위형 의사소통 유형과 배경변인과 관계를 볼 때 아버지-아들인 경우가 아버지-딸인 경우 보다 더 많이 사용 되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자관계의 표현으로 보여 진다. 즉 한국의 부자관계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아버지가 자식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수정하거나 변화 시키는 것은 힘든 일이며,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고, 자식은 복종적이고 희생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도록 조장하는 관계속성(송성자 1985; 최재석, 1982)이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자녀가 미혼인 경우 권위형이 더 많은 것은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독립된 성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직도 자신의 충고나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아버지의 배우자 유무에 관해서는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만 계신 경우 대화자(communicator)가 1인 이므로 2인인 경우 보다(부모 양쪽이 있는 경우) 자녀측에서는 더 권위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권위적으로 대화할 경우 그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친밀형이 권위형 의사소통의 경우와는 반대로 아버지-딸인 경우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버니-아들의 관계가 권위적이고 엄격한 반면 딸에게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자녀의 나이가 50대인 경우 친밀형이 낮다고 나타난 것은 자녀 자신이나 부모 모두 친밀형의 특성인 표현을 중시하는 의사소통에 익숙치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으며, 이와는 반대로 자녀의 나이가 20대인 집단에서는 부모님에게 표현을 중시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기대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자녀가 기혼인 경우 老父가 친밀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 것은 결혼한 자녀는 미혼일 때와는 달리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어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편에서는 권인위적 면에 반해서 친밀함이 강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겠다.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접촉의 빈도가 동거하는 경우보다 적을 것이고 따라서 의견 차이나 마찰이 생길 빈도가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 불성실형은 불성실형의 특성이 화제의 주제를 자주 바꾸고,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는 것임을 볼 때, 어머니가 가족성원간의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의존한 대화를 많이하게 되며, 아들이 딸보다 이것을 더 불성실형으로 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4) 희생형은 老父의 경우 자녀의 연령과 아버지의 연령이 적은 집단이 연령이 많은 집단에 비해서 희생형을 많이 쓴다고 한 것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따라서 그 부모인 아버지의 연령도 증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표현하기보다는 자식의 의견에 따르며 참고 견디려는 특징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겠다. 또한 이런 경향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희생형 의사소통이 많은 것과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겠다. 老父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 즉 부모 모두 계신 경우 아버지의 희생형이 많은 것은 아버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을 나타낸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자녀가 기혼인 경우 老父의 의사소통이 희생형인 것은 희생형이 자녀의 의견을 따르며, 희생적인 특징임을 감안 할 때 자녀가 결혼 하였으므로 자신의 가정을 가진 어른으로 생각해서 의견을 존중하려는 생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구문제 2의 분석

老父母와 성인자녀간의 갈등이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를 알기 위하여 老父와의 갈등, 老母와의 갈등을 각각 배경변인에 따라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는 Sheffé-Test하였다. 사후 검증 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겠다(표 4).

老父, 老母 모두 공통적으로 갈등과 관련있는

변인은 자녀의 연령, 老父母의 건강, 자녀가 제공하는 경제적 도움이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갈등이 차이가 있는 것은, 즉 20~29세 집단이 모두 갈등이 높은 것은 부모의 나이는 60세 이상으로서

자녀의 나이가 20~29세인 경우 최소 30세에서 최대 40세의 연령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령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령차이가 타 집단에 비해 더 크기 때문으로 세대차이의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

표 4. 老父母와의 갈등

老父母	변인	구분	M	F	grouping
老父	자녀의 연령	20 ~ 29 세	37.50	2.88**	A
		30 ~ 39 세	29.06		B
		40 ~ 49 세	30.23		B
		50 ~ 59 세	37.70		A
	老父의 건강상태	상	30.27	3.95**	AB
		중	29.15		B
		하	37.18		A
	老父의 학력	국졸, 서당이하	31.69	4.32***	AB
		중 졸	26.63		B
		고 졸	28.29		B
		대학 이상	35.19		A
	대화 정도	적게한다	32.26	3.46**	A
		보통이다	30.54		AB
		자주한다	27.11		B
老母	경제적 도움	생활비전액	36.14	2.43**	A
		생활비일부액	32.53		AB
		용돈정도	30.73		AB
		필요시에만	29.44		AB
		전혀하지않음	27.03		B
	자녀의 연령	20 ~ 29 세	38.60	4.04***	A
		30 ~ 39 세	27.82		B
		40 ~ 49 세	29.27		B
		50 ~ 59 세	32.04		AB
	가정의 생활정도	상	26.56	4.02**	B
		중	30.07		A
		하	29.80		AB
	老母의 배우자 유무	있 음	27.36	10.33***	
		없 음	30.69		
	老母의 건강 상태	상	27.33	5.31***	B
		중	29.42		B
		하	33.76		A
	경제적 도움	생활비전액	32.09	2.35*	A
		생활비일부액	30.93		AB
		용돈정도	28.19		AB
		필요시에만	30.11		AB
		전혀하지않음	27.63		B

\*P&lt;.10 \*\*P&lt;.05 \*\*\*P&lt;.01

다. 50~59세 집단은 자녀자신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노후에 대한 긴장과 부모의 나이도 따라 증가할 것이므로 경제적, 심리적 쇠약성이 심하여 그 의존욕구의 충족으로 인한 갈등으로 해석된다. 건강은 노인에게 중요한 지표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노년기에 적응하는데 일반적인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Johnson & Bursk, 1977)와 일치한다. 자녀가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제공할수록 갈등이 많은 것은 자녀의 편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가족과 부모 양쪽에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가진 경우 경제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정도가 클수록 자녀세대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갈등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건강과 경제적 도움 모두 노인의 의존성과 갈등과의 관련을 제시한 것이라 할때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이 문제가 더 심각하며 실제로도 저소득층 노인들 자신이 생활의 제 문제에 대한 심각도를 느끼는 정도가 건강이 나쁠수록 그 정도가 크다는것과 일치한다(김태현, 1990).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그들의 수입원이 자녀로부터인 경우가 많으며(72.8%), 이것이 주된 수입원(63.7%)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중복응답결과임.)것과 노인이 필요로하는 부양의 종류를 그 순서대로 볼때 경제적부양, 정서적부양, 서비스부양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것을 볼때(김태현, 1981). 노인의 경제적 주 부양자인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원조를 많이 할 경우 갈등이 많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老父의 경우 대화정도가 적을수록 갈등이 많은 것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가치관, 신념, 공통 관심을 이야기하고 문제거리를 의논 할 수 있는 상황이 적은 것에 기인 한다고 보겠다. 즉, 자녀 측에서는 아버지의 욕구와 자신들의 욕구의 해결을 위한 기회가, 대화가 적을 경우 부족하게 되므로 갈등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생각된다.

老母의 경우 생활정도가 “중”인 집단에서 갈등이 제일 많았던 것은 생활정도가 갈등에 영향을

주었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홀어머니인 경우에 자녀측에서 갈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혼자된 여자노인이 소득의 근원인 배우자를 상실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치 못하고 결혼을 통하여 충족되었던 사회 생활등의 욕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대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적 의존성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3. 연구문제 3의 분석

老父母의 의사소통 유형은 성인자녀의 老父母에 대한 갈등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영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각 유형과 15개 갈등변수들과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gamma$ 을 산출하였고, 의사소통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변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표 5).

의사소통의 각 유형과 갈등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각 유형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그러나 이 유형들이 갈등변수를 반드시 예시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중다회귀분석을 하여 영향을 알아봐야 한다.

老父의 경우를 의사소통 유형을 중심으로 보면, 권위형은 각 갈등변수와 모두 정적상관을 가지며 영향력에 있어서도 정적으로 나타나 권위형을 老父가 많이 사용할수록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친밀형은 부적상관으로서 갈등을 저하시킨다. 그러나 老父의 권위로 인한 갈등과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한 갈등외에는 영향력이 없는데 이는 권위형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밀형의 영향력을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성실형은 권위형과 마찬가지로 갈등과 정적상관으로서 갈등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불성실형이 영향력을 갖는 갈등변수는 권위형과 비교해 볼 때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적다. 회생형은 상관관계에 있어서 대체로 부적인 경향이다. 老父와의 갈등변수에 대한 의사소통의 각 유형의 영향력은 각 갈등을 39.8%에서 13.3%까지 설명하고 있다. 갈등변수별로 볼 때 의사소통유형에 의해서 가장 많이 설명 될 수 있는 변수는 老

표 5-1. 老父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력

갈등변수		老父의 권위			서로의 이해부족			사위, 며느리관계			자식에 대한기대			가지관 차이		
의사소통유형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권 위 형	.61***	.42***	.56***	.49***	.57***	.30***	.52***	.39***	.51***	.60***	.51***	.60***	.51***	.60***	.51***	
친 밀 형	-.55***	-.16*	-.38*	-0.1	-.43***	-.12	-.44***	-.19*	-.34***	.04	-.34***	.04	-.34***	.04	-.34***	.04
불성실형	.51***	.15*	.49***	.15*	.53***	.24**	.44***	.09	.32***	-.03	.32***	-.03	.32***	-.03	.32***	-.03
희 생 형	-.17*	.03	-.06	-.02	-.14*	-.03	-.08	-.06	-.02	.11	-.02	.11	-.02	.11	-.02	.11
R <sup>2</sup>	.398		.362		.359		.331		.319							

  

갈등변수		경제적인 문제			생활관찰차이			내화시 이체부족			손자녀 편애			상대적인 비교		
의사소통유형		$\gamma$	$\beta$													
권 위 형	.43***	.39***	.51***	.52***	.45***	.34***	.48***	.31***	.42***	.32***	.42***	.32***	.42***	.32***	.42***	.32***
친 밀 형	-.42***	-.11	-.34***	-.07	-.46***	-.11	-.35***	-.06	-.38***	.06	-.38***	.06	-.38***	.06	-.38***	.06
불성실형	.48***	.14	.29***	-.06	.39***	.16*	.32***	.10	.44***	.18*	.44***	.18*	.44***	.18*	.44***	.18*
희 생 형	-.10	.04	-.12	-.00	-.04	.11	-.26***	-.13*	-.04	.05	-.04	.05	-.04	.05	-.04	.05
R <sup>2</sup>	.298		.265		.261		.244		.239							

  

갈등변수		의견대립 문제			손자녀 관계			자녀 무사			례의범절 문제			자녀친 간섭		
의사소통유형		$\gamma$	$\beta$													
권 위 형	.47***	.53***	.38***	.21	.44***	.36***	.43***	.34***	.34***	.34***	.34***	.34***	.34***	.34***	.34***	.34***
친 밀 형	-.29***	-.03	-.31***	-.10	-.28***	-.03	-.33***	-.13	-.19**	.04	-.19**	.04	-.19**	.04	-.19**	.04
불성실형	.31***	-.04	.42***	.24*	.38***	.17	.32***	.05	.28***	.09	.28***	.09	.28***	.09	.28***	.09
희 생 형	-.10	-.02	.07	.16	-.06	.01	.06	.01	.02	.08	.02	.08	.02	.08	.02	.08
R <sup>2</sup>	.228		.224		.215		.209		.133							

\* P&lt;.05   \*\* P&lt;.01   \*\*\* P&lt;.001   \*\*\*\* P&lt;.0001

표 5-2. 老母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력

갈등변수		서로의 이해부족			老母의 권위			대화시 이해부족			사위, 며느리관계			자녀 부사		
의사소통유형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권위형	.49***	.26***	.51***	.24***	.36***	.13*	.47***	.25***	.41***	.25***	.41***	.25***	.41***	.25***	.41***	.25***
친밀형	-.33***	-.13*	-.37***	-.17*	-.29***	-.12*	-.34***	-.18**	-.23***	-.06	-.34***	-.18**	-.23***	-.06	-.34***	-.18**
불성실형	.45***	.20**	.45***	.21**	.48***	.33**	.39***	.15*	.42***	.27***	.39***	.15*	.42***	.27***	.39***	.15*
회생형	-.04	-.05	-.13*	-.07	.08	.03	-.04	-.04	-.03	-.05	-.04	-.04	-.03	-.05	-.04	-.05
R <sup>2</sup>		.303		.279		.268		.262		.219		.262		.219		.219
갈등변수		경제적인 문제			생활습관 차이			순자녀 관계			자녀친 간섭			순자녀 관계		
의사소통유형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권위형	.37***	.21***	.40***	.26***	.35***	.09	.48***	.34***	.37***	.13	.48***	.34***	.37***	.13	.48***	.34***
친밀형	-.39***	-.21***	-.31***	-.21**	-.35***	-.18*	-.21***	-.01	-.30***	-.15*	-.35***	-.18*	-.30***	-.15*	-.35***	-.18*
불성실형	.33***	.08	.29***	-.00	.41***	.21**	.28***	.05	.38***	.21**	.28***	.05	.38***	.21**	.28***	.05
회생형	-.06	-.02	.04	.10	.02	.02	-.00	.01	-.05	.01	-.00	.01	-.05	.01	-.05	.01
R <sup>2</sup>		.214		.188		.183		.172		.164		.172		.164		.164
갈등변수		자식에 대한 기대			의견대립 문제			상대적인 비교			예의범절 문제			가치관 차이		
의사소통유형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gamma$	$\beta$	
권위형	.36***	.27***	.35***	.24***	.36***	.21**	.29***	.13	.27***	.10	.29***	.13	.27***	.10	.29***	.13
친밀형	-.22***	-.08	-.24***	-.10	-.25***	-.06	-.22***	-.07	-.22***	-.08	-.25***	-.06	-.22***	-.08	-.25***	-.06
불성실형	.29***	.03	.27***	.09	.32***	.10	.31***	.11	.34***	.11	.32***	.10	.34***	.11	.32***	.10
회생형	-.02	-.02	-.04	-.05	-.04	-.05	-.05	.08	.07	.09	-.05	.08	.09	-.09	-.05	-.09
R <sup>2</sup>		.154		.148		.136		.104		.083		.104		.083		.083

\* P<.05   \*\* P<.01   \*\*\* P<.001   \*\*\*\* P<.0001

父의 권위로 인한 갈등으로 의사소통 유형이 39.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老父의 입장에서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자녀들편에서는 권위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老母의 권위형은 老父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갈등과 정적상관을 나타낸다. 그리고 친밀형을 부적상관, 불성실형은 정적상관을 나타낸다. 老父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은 친밀형이 아버지의 경우와 비교해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다는 점이다. 아버지의 경우 친밀형은 2개 변수 밖에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어머니의 경우는 8개 변수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老父의 경우 권위형이 의사소통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면 老母의 경우는 老父에 비해서 권위형이 미미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老父에 비해 작고 반대로 친밀형이 갈등을 저하시키는데 공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성실형은 7개 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희생형은 老母의 권위로 인한 갈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다른 변수들과는 상관관계나 영향력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老母의 경우는 갈등변수들은 의사소통 유형에 의해서 최고 30.3%에서 최하 8.3%까지 설명되며 갈등변수 중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이 의사소통 유형에 의해서 설명된다(30.3%). 이는 의사소통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통로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老父母의 의사소통 유형은 각 유형별로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권위형, 친밀형, 희생형의 경우에는 老父의 경우만 차이가 있었고 불성실형은 老母의 경우에만 차이가 있었다.

2) 갈등은 老父, 老母 모두 자녀의 연령, 老父母의 건강,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인 도움이 주요 변인이고, 老父, 老母 차이가 난 변인은 老父의 경우 老父의 학력, 대화정도였고, 老母의 경

우는 가정의 월수입, 老母의 배우자 유무였다.

3)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과의 관계는 老父, 老母 모두 권위형과 불성실형은 정적상관과 정적인 영향으로 갈등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밀형은 부적인 상관과 영향을 줌으로서 갈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생형은 의미있는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다. 의사소통 유형이 가장 많은 양을 설명해주는 갈등 변수는 老父의 경우는 아버지의 권위 문제로 인한 갈등 (39.8%)이며, 어머니의 경우는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갈등 (30.3%)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老父母와 성인 자녀간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각 유형이 갈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화정도가 많을수록 갈등이 적은 것을 볼 때 두 세대간의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권위형과 같은 의사소통 유형을 지양하고, 관계의 질적 향상에 보탬이 되는 친밀형과 같은 의사소통을 도모하도록 노인세대와 자녀세대 모두에게 교육하는 것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노인문제 및 기타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배경변인과의 관계는 한국 가족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가족구조의 특성상 부자관계는 부계가족의 핵심적 관계이면서도 그 구조적인 특성 즉 아버지와는 상하복종적이고 권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권리관계고 어머니와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부족한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사켜 주고 엄격한 관계를 중화시켜주는 애정관계라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다음세대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서 긴밀한 관계이지만 애정적으로는 잠재적 거리를 가지는, 즉 먼 관계임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부계가족의 특성인 훈육적인 관계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이 권위형의 특질을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권위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老父母의 나쁜 건강과 경제적 의존이 살등을 증가시킴을 볼때 자녀측에서 노화로 인한 의존성의 증가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제도적으로도 노인들의 건강 악화방지와 자녀세대가 아닌 노인들 자신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의존성이 더 큰 저소득층 노인과 여성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예상외로 동거여부는 갈등에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아닌 친부모관계에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동거로 인한 노인의 사기 저하나 심각한 갈등은 야기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노인들 편에서 보면 실제로 갈등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며 본 연구가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老父母와 성인자녀를 한쌍으로 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세대간의 관계파악에 있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老父母-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도구의 표준화와 노인에게도 적당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유형의 평균 점수를 보면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권위형, 불성실형, 회생형의 경우 대체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갈등에 있어서도 그 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첫째로는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답하는 과정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갈등이 모두 부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에게는 자신이 부모님과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부모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응답하는데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정도만을 측정한다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친부모-자녀라는 관계의 속성으로 인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보다 덜 지각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Bengtson (1971)이 제시한 사회 전반으로 보면 노인과 젊은 세대간에는 세대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한 가족내에서는 그 차이가 극히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윤진, 1983; 재인용)와 같이

우리가족내에는 그러한 의사소통 행위나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1) 김양희(1986). 한국도시인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재은(1981).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대 출판부.
- 3)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태현(1990). 도시저소득층의 노인 문제. 현대 사회와 가족문제. 서울특별시: 가족학연구회. 가정복지세미나.
- 5)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문제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송현애(1987). 부양을 중심으로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유영주(1985). 신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8) 윤 진(1983).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50.
- 9) 윤 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 성 출판사.
- 10) 이창숙(1987). 한국 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11) 이효재(1984).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 12) 임춘희(1988). 분거한 도시 장남 부부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장선주(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최신덕(1983). 노인부양과 규범의 정립. 학가족화와 노년복지. 서울: 계문사.
- 15) 최재석(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16)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제 2차 국제비교조사.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17) 황필호(1984). 한국인의 성격에 대한 종교학적 고찰. 한국인의 성격.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 18) Argyle, A. & Furnham, A.(1983). Sources of satisfaction and conflict in longterm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3), 481-

493.

- 19) Arling G.(1976). The elderly widow and her neighbors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4), 757-768.
- 20) Atkinson M.P., Kivett, V.R., Campbell, R.T.,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 an examin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41(3), 408-416.
- 21) Bengtson, V.L.(1982). Research across the generation gap. In Schaeie, Geiwitz, Adult development and aging. Little Brown and company, 50-64.
- 22) Bengtson V.L. & Cufler, N.(1976). Generations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Binstock &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Van Nostrand Reinhold.
- 23) Bienvenu, M.J. & McClain, S.(197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 esteem. *Journal of Home Economics* 62(5).
- 24) Blieszner, R., Mancini, J.S.(1987). Enduring ties ; older adult's parental role and responsibilities. *Family Relations* 36(2).
- 25) Brody, E.(1986).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In Troll(ed) Family issues in current gerontology. Springer Pub. co.
- 26) Cicirelli, V.(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815-825.
- 27) Galvin, K.M. & Brommel, B.J.(1982). Family Communication : the cohesion and change. *Scott Foresman and co.*
- 28) Hawkins, J.L., Weisberg, C., Ray, D.W.(1980). Spous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585-593.
- 29) Hess, B. & Wring, J.(1978). Changing patterns of aging and family bonds in later life. *The family Coordinator* 27(4).
- 30) Honeycutt, J.M., Wildson, C., Parker, C.(1982). Effect of sex and degrees of happiness perceived styles of communication in and out of the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2), 395-406.
- 31) Jacobson, R.B., Berry, K.J., Olson K.F.(1975). An Empirical test of the generation gap : a comparative intra family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4), 841-852.
- 32) Johnson, E.S. & Bursk, B.J.(1979).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adult children In Phelan GK. Family relationships Burgess pub. co.
- 33) Marotz-Baden, R. & Cowan, D.(1987).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 the effect of proximity on conflict and stress. *Family Relations* 36(4), 385-390.
- 34) Moss, M.S., Moss SZ & EL.(1985).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out-of-town children. *The Gerontologist* 25(2).
- 35) Quinn, W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57-73.
- 36) Satir, V.(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lif : Scoence and Behavior book Inc :
- 37) Seelbach, W.C.(1987). Correlates of aged parents'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 and relations. *The Family Coordinator* 27(4).
- 38) Shanas, E.(1982). Social myth as hypothesis : the case of family relations of old people. In Schaeie KW & Geiwitz J Adult development and aging. Little Brown and Co.,
- 39) Streib, G.(1972). Older families and their troubles : familial and social responses. *The Family Coordinator* 21(5).
- 40) Swenson, CH.(1973). Introduction to interpersonal relations. Scott. Foresman Co.
- 41) Watzlawick, P., Beavin, J. & Jackson, D.(1967).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s NY Norton and Co. Inc.
- 42) Wilmot, J.H. & Wilmot, W.W.(1987). Interpersonal conflict. Dubuque : Iowa IA : Wm C. Brown co.